

대학입시 재수경험에 대한 의미화작업

이 상 현

정 태 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역경으로서의 재수를 한 대학생이 그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Lee와 Jung(2014)의 연구에 참가한 재수경험이 있는 대학생 중에서 대학 만족 수준(더 만족/덜 만족), 재수 경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더 긍정/덜 긍정)의 4개 유형에서 각 3명씩 총 12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여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재수경험에 대한 7개의 구성요소와 19개의 하위구성요소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세 가지 시간적 맥락에 따라 범주화하였다. 재수경험에 대한 인식이 각 관점에 따라 달랐는데, 첫 번째는 재수과정에 대한 실천적 관점으로서, 재수는 '한계와 고통을 주지만 목표를 위해 이겨내야 하는 것'을 의미했다. 두 번째는 재수의 결과에 대한 평가적 관점으로서, 재수는 '나를 발전시키지만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것'을 의미했다. 세 번째는 앞의 두 관점에서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전체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적 관점으로서, 재수경험이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게 해준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추후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재수경험, 역경, 의미작업, 대학생활, 질적 연구

[†] 교신저자 : 정태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Tel: 02-820-5132, E-mail : tjung@cau.ac.kr

대한민국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한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로 한국인의 강한 교육열은 한국사회의 교육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는데, 가령, 2012년 현재 한국 청소년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이었으며,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71.3%로서, 교육 수준이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OECD, 2012). 이러한 높은 교육수준은 한국이 20세기에 겪은 일본의 식민지와 남북한 간 전쟁의 굴곡을 딛고 오늘날 세계 15위의 경제력과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 3세계 국가 중에서 드물게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룩한 근간이 되었다. 한국의 교육은 세계 100개국의 학생들이 참가한 2012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에서 금메달 6개 획득과 함께 종합 1위를 차지할 만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International Mathematical Olympiad, 201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강한 교육열이 청소년들에게 높은 학업성적을 위한 과도한 경쟁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 및 문제를 야기한다(금명자, 2008; 박영신, 김의철, 2008). 2010년 우리나라 15~19세 청소년들의 사망 유형 1위는 자살로, 그 원인으로 ‘성적과 진학 문제’가 53.4%로 가장 높았으며(통계청, 2010), 대학생들이 보고한 과거의 역경 사건 중에서 ‘학업문제’가 두 번째로 높았다(김보라, 신희천, 2010). 이처럼 출신 대학교를 중시하는 풍토 속에서 매년 고등학생들이 좀 더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1년을 더 입시준비를 한다. 그래서 오늘날 대입 수험생의 20~30%를 재수생들이 차지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재수는 대학입시에 실패한 학생들에게는 인생에서 매우 큰 역경이다(오봉진, 2009).

이러한 상황에서 재수가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학문적 연구들이 있어 왔는데,

그러한 연구는 다른 역경에 관한 연구와 그 추세를 같이 하고 있다. 역경에 관한 초기 연구는 역경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었지만, 그 이후 역경의 긍정적인 효과를 조명하려는 연구들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인은 역경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만 역경을 겪은 후에는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공존할 수 있다(Joseph, Williams, & Yule, 1993). 또한 그러한 경험을 자신의 삶으로 수용하여 해당 역경을 의미화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삶 전반에 대하여 갖고 있던 기존의 의미도 수정하게 된다(Klinger,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수 경험을 부정적 영향 및 긍정적 효과 그리고 삶의 의미 측면에서 살펴보고, 재수에 대한 인식의 구성요소를 시간적 맥락에 따라 범주화하여 역경으로서 재수 경험의 의미화 작업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역경으로의 재수: 그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

외상(trauma)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역경 관련 초기 심리학 연구들은(e.g., Downey, Silver & Wortman, 1990; Guerra & Slaby, 1989; Horowitz, 1986) 주로 실제 죽음이나 생명의 위협, 심각한 부상 혹은 자기와 타인을 통합하는 신체적 안녕의 위협, 극심한 무력감, 공포, 전율을 초래하는 사건 경험자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역경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의 지속, 통제감 상실, 일상생활의 마비, 자신과 타인의 비난 등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밝혀왔다.

이러한 역경 관련 연구의 흐름과 유사하게,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1990년대까지 이루어

진 재수 관련 초기 연구는 재수의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두어왔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들은 재수생들이 여러 심리적 압박과 갈등 및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재수생은 일류 대학이나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했는데, 전문직, 높은 보수, 사회적 명성이 높은 직업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최영표, 한만길, 이혜영, 1989). 이처럼 출신 대학교의 명성이 사회계층을 결정한다는 학벌중심의 사고방식, 자신의 자녀가 일류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부모의 압력 때문에, 재수생들은 명성 있는 대학교에 입학해야 한다는 강한 심리적 압박을 겪는다(김태연, 김유진, 1978). 이러한 과정에서 재수생들은 대학입학 실패 경험으로 인한 좌절감, 부모의 높은 기대로 인한 부담이나 그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죄책감,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 기존 대인관계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했다(윤덕상, 1981). 또한, 그들은 대학생이 된 동년배에 비해 자신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열등감을 겪었고(배수옥, 1991), 성적 부진으로 인해 심한 불안을 느끼며, 그들 중 30%는 그로 인해 우울 증세를 가지고 있었으며(정관희, 1998), 입시 좌절로 인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송인섭, 1993). 이처럼 재수생들은 재수과정에서 좌절, 열등감, 죄책감, 소외, 불안 등을 경험하며 이는 신체 및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태현, 남철현, 2000)

그런데 1990년대에 이르러 역경을 경험한 사람들이 삶에서 중요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여러 단서들이 나타나면서 다른 관점의 심리학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외상 사건 이후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측

면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그 개념도 점차 세분화되어 역경에 따른 성장(Adversarial growth), 외상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스트레스 관련 성장(stress-related growth)등의 용어로 연구되고 있다(임지준, 2012; Cordova, Cunningham, Carlson & Andrykowski, 2001; Frazier, Conlon, & Glaser, 2001; Joseph et al., 1993; Tashiro & Frazier, 2003; Waysman, Schwarzwald & Solomon, 2001),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역경을 겪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지각, 대인관계, 인생관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주로 보고하였으며(Tedeschi & Calhoun, 1996), 전쟁피해자(Waysman et al., 2001), 암환자 및 가족(Collins, Taylor & Skokan, 1990), 사별(Calhoun & Tedeschi, 1998), 에이즈감염자(Siegel & Schrimshaw, 2000), 성폭력피해 경험자(Frazier et al., 2001), 조난 및 재난생존자(Joseph et al., 1993; Thompson, 1985), 탈북 청소년(윤지혜, 오영립, 2010), 실연(김미재, 2005), 미혼모(이유리, 2010) 등 매우 다양한 사건에서 경험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한편, 역경과 관련된 질적 연구들에 따르면 역경 경험의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효과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난생존자의 인식변화를 다룬 연구에서는 타인에 대한 관점, 자신에 대한 가치, 강인함 등의 영역에서 긍정적인 방향과 부정적인 방향의 변화가 모두 보고되었고(Joseph et al., 1993), 성폭력 경험자의 인식변화를 다룬 연구에서는 경험자들이 삶의 철학이나 개인의 역량에 관한 인식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한 반면, 타인에 대한 믿음과 세상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부정적인 변화를 보고하였다(Frazier et al., 2001). 아동기 성폭력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을 한 국내의 연구에서도, 기

존 연구에서 다루던 긍정적인 변화 외에 ‘성 폭력 경험은 내 몫으로 남음’과 같은 인식이 공존하고 있었다(한노을, 2008).

대략 2000년대부터 이루어진 재수관련 연구들은, 매우 소수이지만, 역경 연구의 최근 흐름과 유사하게 재수를 단지 부정적 관점뿐만이 아니라 적응의 과정 혹은 긍정적 변화의 측면에서도 보고자 했다. 예를 들면, 오봉진, 천성문, 이영순 (2009)은 재수를 세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임을 보여주었다. 즉, ‘혼돈과 희망의 단계’에서 재수생들은 대학입학이라는 목표에 대한 희망과 더불어 지난 대입 실패에 따른 열등감, 성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했다. 두 번째 단계 ‘깨달음의 단계’에서 재수생들은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변화된 상황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위치를 찾아갔다. 이와 함께 재수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으며 대학진학을 이루기 위해 공부에 몰입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어울림의 단계’로 시험을 마친 학생들은 재수를 통해 자신의 인격이 성장했다고 인식하고 자신의 노력에 따른 성취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준비, 대학생활에 대한 자신감 등을 갖게 되었다. 또 다른 연구(심연식, 2011)에서는 재수생들이 재수과정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및 부정적 변화를 보여주었다. 즉, 재수생들은 재수과정에서 학업성적에 대한 열등감, 노력과 결과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좌절감, 신체적·정신적 쇠약 등의 부정적인 변화와 더불어 겸손한 사고,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태도의 향상, 주어진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력과 인내력의 증가, 보다 객관적이고 반성적인 사고, 노력에 따른 결과의 비대칭성에 대한 수용이라는 긍정적 변화도 경험했다.

역경과 의미 작업

역경을 다룬 많은 연구자들은 역경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는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것이라는 생각을 검증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역경으로 인한 성장과 같은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면 현재 긍정적인 정서는 높고 부정적인 정서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Abraido-Lanza, Guier & Colon, 1998; Evers et al., 2001; Park, Cohen, & Murch, 1996). 그러나 역경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영향을 ‘쾌락의 획득과 고통의 회피’라는 쾌락주의적 관점만으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점은 역경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단지 회피해야 할 경험으로 간주할 뿐, 그러한 경험에 대한 당사자의 실제 인식과 평가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위 ‘부모됨의 역설(parenthood paradox)’인데, 예상과는 달리 자녀 출산 및 양육이 주관적 안녕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Baumeister, 1991). 이처럼, 어떠한 경험으로 인한 영향을 주관적 안녕감만으로 다루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철학적으로 ‘자기실현’ 개념에 기초하는 ‘의미적’ 접근 역시 중요하다(주경례, 안신호, 2005; Baumeister, 1991).

‘삶의 의미’는 다양해서 한 마디로 간단하게 정의하기 어렵지만 주로 ‘삶에 대한 목적의식(Klinger, 1998; Ryff & Singer, 1998)’, ‘삶에서 중심적인 것(Park, 2010)’ 등으로 정의된다. 인간은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를 통해 진화되었으며, 그러한 행위가 방해받거나 좌절되면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추구한다(Klinger, 1998). 즉, 인간은 삶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삶의 의미를 변화 및 발전

시켜 나간다(Maddi, 1998). 의미작업모형(The meaning-making model: Park, 2010)은 역경이 개인의 의미체계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설명하고 있다. 즉, 개인은 신념, 목표, 주관적 느낌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의미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체계와 모순되는 사건과 직면하면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모순의 정도가 심할 경우 이러한 사건은 매우 큰 역경이 된다. 그 후, 그 개인은 의미화 과정을 통해 그 역경과 모순되지 않는 새로운 상황적 의미를 형성하는 식으로 기존의 전반적인 의미체계를 변화시킨다(Park, 2010). 이처럼 역경은 개인을 일종의 의미 위기에 빠뜨려 기존의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 후,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평가 및 재조직하게 한다(Vash, 199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역경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형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Tomer, Eliason & Wong, 2007).

의미 추구가 역경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더 잘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발달적으로 청소년기는 이러한 의미 추구가 매우 활발할 수 있다(Fry, 1998). 청소년기는 부모나 동료들과 같은 중요한 타인과의 의존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더 큰 개인으로서 사회적 생물학적 경험을 통제하고 이해하도록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안은 자연스러운 경험이며 그것은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가령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삶에 대한 의심과 불안은 고통스럽고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자신을 믿고 고통을 견디면 더 큰 보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경험적 의미를 획득한 청소년은 삶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갖게 되며 의미와

불확실성의 균형을 맞추게 된다(Fry, 1998). 한국 사회의 경우, 청소년들은 거의 대부분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속에서 상당히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오봉진 외, 2009). 이러한 문화적 상황 속에서 ‘재수’라는 경험은 국내 청소년의 역경과 의미를 살펴보면 주요한 인생사건이다(심연식, 2011).

본 연구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배수옥, 1991; 오봉진 외, 2009), 재수에 관한 기존 연구는 재수로 인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변화의 수준 및 그것과 관련된 변인들을 양적 연구방법으로 규명해 왔다. 이러한 양적 연구는 분명 재수라는 역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나름대로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재수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필연적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을 동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경으로서의 재수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거의 모두 재수의 효과를 그 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아보았다. 그러나 재수의 과정을 마친 사람의 삶에 재수가 미치는 효과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실제 역경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한 소위 외상후 성장에 관한 다수의 연구(Affleck, Tennen & Croog, 1987; Best, Streisand, Catania & Kazak, 2001; Cordova et al., 2001; Frazier et al., 2001; Joseph et al., 1993; McMillen, Smith, & Fisher 1997; Schwartzberg & Janoff-Bulman, 1993; Tashiro & Frazier, 2003)가 역경을 겪은 후의 시점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재수가 그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는 것은 역경으로서의 재수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현재의 삶에서 역경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충분히 기술할 수 있는 질적인 연구 접근이 필요하다(Zoellner & Maercker, 2006). 특히, 역경이 삶의 의미화 작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Park, 2010), 역경을 경험한 사람이 그 인생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혹은 역경이 기존의 의미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예를 들면, 가령, 폭력 사건으로 인한 사별을 겪은 사람들에게 관한 연구에 따르면(조명숙, 2012), 그들은 초기에 허망함, 소진되는 느낌, 건강 악화, 삶의 의욕 상실 등을 경험하였다. 이후엔 자신들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 사회적 정의에 호소하였다. 또한, 떠난 사람의 삶을 돌아보고 재평가하면서 그 사람이 살았던 삶, 살고자 했던 삶을 자신에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현재 시점에서 해당 사건 및 그 이후의 일들을 자연의 법칙으로 수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의미와 목적을 두고 이를 실행해 옮기고 있었다. 또한 애인과 이별한 개인에 관한 연구에서도(신수빈, 2012), 그들은 초기에 행동 및 생활, 생각, 정서 부분에서 식욕감소, 수면부족, 알콜남용 등을 경험하였고 이별에 대해 후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 및 이성에 대한 불신 등의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현재 시점에서 해당 경험에 대한 후회 및 기억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일부로 수용하였으며 스스로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대학생들이 재수에 대해 어떤 의미화 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실제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재수를 통해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수 경험에 대한 인식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포괄적으로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이들을 통해 재수라는 인생사건 과정에서 겪는 긍정적 및 부정적 경험, 재수를 마친 이후 이 사건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평가요인들, 그리고 재수에 대한 의미화 과정을 탐구하였다.

방 법

참가자

참가자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참가자는 재수경험이 있는 대학생 12명(남: 6명, 여: 6명)이다. 이들의 연령은 21세부터 22세까지로 평균 21.42(SD = .67)이며, 이들의 재수기간은 모두 1년으로 동일했다. 이들의 출신학교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로,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대한 최근의 종합적인 평가에서 A와 B 대학교는 상위 10~15%, C는 30~40%에 해당한다. 이들은 한 명(사례 05)을 제외하고 모두 자발적으로 재수과정을 선택하였으며, 그 이유는 미래의 목표, 성적 향상이나, 주변 인식 등이었다. 이들에 대한 표집은 재수경험과 대학생활에 대한 기존의 양적 연구(Lee & Jung, 2014)에 참가한 재수경험이 있는 203명의 학생 중에서 선정하였다. 이 양적 연구에서는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수 여부가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

표 1.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및 재수 관련 특성

사례 번호	성별	대학교	학년	연령	소득 수준	종교	재수 자발성	재수 선택이유	대학 만족	재수 긍정
01	남	A	1	21	중	천주교	자발적	점수 향상	더 만족	높음
02	여	A	2	22	중	무교	자발적	미래 목표	더 만족	높음
03	여	B	2	22	중상	천주교	자발적	미래 목표	더 만족	높음
04	남	A	1	20	중하	무교	자발적	주변 인식	더 만족	낮음
05	여	A	2	22	중	무교	비자발적	주변 인식	더 만족	낮음
06	남	A	1	21	중	기독교	자발적	점수 향상	더 만족	낮음
07	여	C	1	22	중	무교	자발적	미래 목표	덜 만족	높음
08	남	A	2	22	상	무교	자발적	미래 목표	덜 만족	높음
09	여	C	1	21	중	무교	자발적	대학 수준	덜 만족	높음
10	남	A	2	22	중	무교	자발적	대학 수준	덜 만족	낮음
11	남	A	1	21	중상	기독교	자발적	미래 목표	덜 만족	낮음
12	여	C	1	21	중하	무교	자발적	대학 수준	덜 만족	낮음

며, 현재 대학생들의 만족수준(김지현, 2007)과 재수 경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Armeli, Gunthert, & Cohen, 2001) 각각에 따라 이분화하여 그들을 4개 유형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에서 3명씩 총 12명을 선정하여 면담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

자료수집은 기본적으로 본 연구자와 면대면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후 분석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전화면담을 통해 보충하였다. 참가자들이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편안하고 조용한 강의실이나 연구실 때로는 커피숍에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시작 전에 일상과 관련된 가벼운 이야기를 건네며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했다.

그 다음, 본 연구의 목적, 자료수집 절차들, 참여자의 비밀 보장, 언제든지 면담을 그만둘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 받았다. 면담 내용은 참가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하였으며, 면담 중 참여자의 태도 등 비언어적 특성도 메모하여 참고하였다. 주요 질문은 (1) 재수에 대한 목표, 겪은 어려움과 대처를 중심으로 한 재수 과정에 관한 것, (2) 재수가 이후의 나의 삶에 미친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하는 재수경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3) 역경으로서의 재수경험에 대한 인식, 자신의 삶과 관련한 가치를 중심으로 한 역경의 의미에 관한 것이었다. 면담은 개방적이고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는 4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녹음된 내용은 분석을 위해 전사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는 재수경험에 대한 인식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여 재수 경험에 대한 인식의 구성요소를 알아보고 시간적 맥락에 따라 범주화하여 의미화 작업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개인들의 체험적 의미를 기술하는 연구로, 기본적인 목적은 특정 현상에 대한 모든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을 기술하고 요약하는 것이다(Van Manen, 1990).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단계와 텍스트에 근거한 기술, 구조적 기술을 조합하기 위한 지침을 갖고 있는(Creswell, 2010) Moustakas (1994)의 접근을 활용해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접근에 따르면, 자료의 분석은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이나 인식을 얻기 위하여 인터뷰 내용을 전사한 축어록 등을 반복적으로 읽어본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학문적 관점에서 해당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들이나 문장, 인용문 등을 강조하는 수평화과정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진술내용 등을 ‘의미단위’로 구분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

는 형성된 의미단위들을 공통된 주제들로 범주화하며, 네 번째 단계에서 이러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현상에 대한 심층적이고 핵심적인 기술을 작성한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먼저 두 명의 연구자들이 참여자들의 진술내용의 전체적인 패턴을 파악한 다음, 심리적으로 중요한 진술들을 표시하며 의미단위를 정리하였다. 일차적으로 파악한 98개의 의미단위들을 46개의 주요 의미단위로 요약했다. 그 다음, 요약된 의미단위들을 바탕으로 19개의 하위구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하위구성요소들을 범주화하여 재수경험에 대한 최종적인 7개의 구성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그림 1에서 보듯이,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의 재수경험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는 시간적이고 과정적인 차원에 따라 세 가지 관점에서 알아보았다. 즉, 역경으로서의 재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재수 할 때에 대한 인식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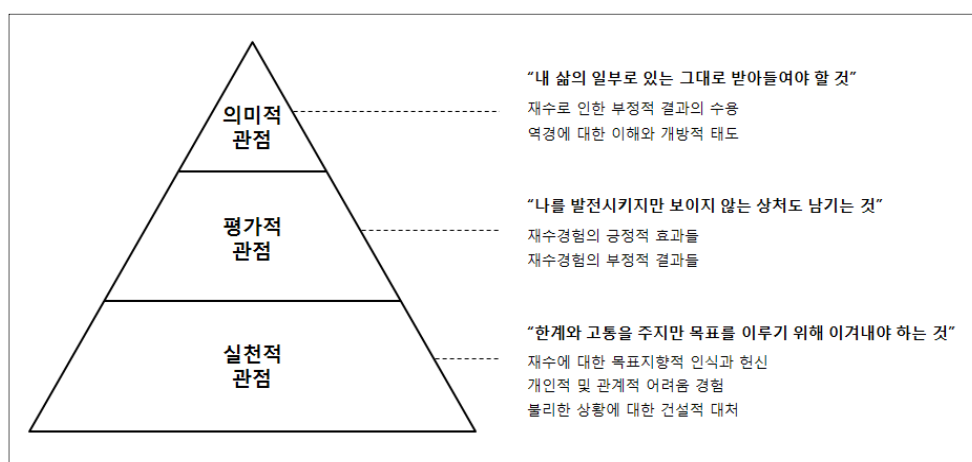


그림 1. 재수경험에 대한 의미작업의 과정. 세 가지 관점에 따른 주요 구성요소를 함께 제시하였다.

로서 ‘실천적 관점’, 재수가 끝난 시점에서 재수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인식으로서 ‘평가적 관점’, 그리고 재수가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 혹은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서 ‘의미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실천적 관점에서 본 재수 경험

실천적 관점은 재수라는 인생사건에서 직접적으로 긍정적 및 부정적 경험을 하는 관점으로서, 참가자들은 재수를 ‘다양한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을 야기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이겨내야 하는 역경’으로 인식하였다. 실천적 관점의 구성요소는 ‘재수에 대한 목표지향적 인식과 헌신’, ‘개인적 및 관계적 어려움을 경험’, ‘불리한 상황에 대한 건설적 대처’이다.

재수에 대한 목표 지향적 인식과 헌신

참여자들은 재수를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이에 헌신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 하위구성요소는 ‘목표 지향적 인식’, ‘목표달성을 위한 헌신’이었다.

첫 번째는 ‘목표 지향적 인식’으로서, 참여

표 2. 실천적 관점의 재수경험 인식구조

관점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의미단위
실천적 관점	재수에 대한 목표지향적 인식과 헌신	목표지향적 인식	원하는 전공과 대학 입학 스스로에 대한 도전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
		목표달성을 위한 헌신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 시간낭비를 막기 위해 친구들과 거리유지
		노력의 한계	노력 대비 오르지 않는 성적 자기조절의 어려움
	개인적 및 관계적 어려움 경험	주변 관계와의 갈등	부모님과과의 갈등 재수생활에서의 새로운 관계 갈등 사회적 비교를 당함
		부적 정서의 지속적 경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불안 자신 또는 주변에 대한 분노
		자신의 한계와 상황 적 어려움을 수용	힘든 현실을 생활 일부분으로 받아들임 자신의 한계를 일부분 받아들임
	불리한 상황에 대한 건설적 대처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절	목표 대학의 범위를 넓힘 대학의 명성보다는 전공 적합성 우선시
		인내와 지속적 노력	오기로 버텨 노력의 결과에 대한 믿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자 함

자들은 원하는 전공과 대학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으며 1년을 더 투자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 목표는 몇몇 개의 대학으로 정해져있는가 하면 특정 수준 이상의 대학을 의미하는 수능시험 점수로 정의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명목적인 목표에 더하여 내면적인 목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재수는 대학입시에서 이미 한 번 실패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자체를 자신의 삶에 주어진 하나의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경험을 바랐다. 한편, 재수의 선택 및 과정은 부모님도 관여가 되어있으므로 재수과정을 통해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도 중요하게 보고되었다.

사례 02: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데에 대한 후회도 남아서... 1년 동안 뭔가를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해야지 이런 마음. 재수경험 전에는 반포기하거나 흐지부지 했었는데.. 재수는 저 자신과의 싸움에 완전히 올인(all-in)을 한 선택이었어요.

두 번째는 ‘목표 달성을 위한 헌신’으로서, 참여자들은 재수과정에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부 이외의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친구들과 연락을 끊거나 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시도를 하며 공부에 몰입하였다.

사례 08: 강압적인 재수 학원을 다녔어요. 아침부터 10시까지 공부를 하는 곳이었고요. 집에 와서도 2시간 정도 더 하고..

거의 매일 그랬죠. 주말에도 집 앞 독서실에 가서 공부했고.. (중략) 여자 친구와 헤어졌고요.. 핸드폰도 없앴죠. 그리고 쇼핑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재수시작하면서 끊었고...

개인적 및 관계적 어려움 경험

참여자들은 재수과정에서 개인적 및 관계적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그 하위구성요소는 ‘노력의 한계’, ‘주변 관계와의 갈등’, ‘부정정서의 지속적 경험’이 있다.

첫 번째는 ‘노력의 한계’로서, 참여자들은 성공가능성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가진 재수 초반과 달리, 재수기간이 지속되면서 노력 대비 오르지 않는 성적, 자기조절의 어려움 등 개인적인 한계에 부딪혔다.

사례 01: 전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던 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 부딪혔던 것 같아요. (중략) 똑같이 시간 투자를 하면서 결과는 더 좋은 주변 사람을 보며 좌절감 같은 게 있었죠.

두 번째는 ‘주변 관계와의 갈등’으로서, 참여자들은 부모님을 비롯한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잦았으며 재수학원 등 새로운 환경에서 사귀게 된 친구들과도 갈등을 경험했다. 사회적인 비교로 인한 갈등도 많았는데, 주로 형제를 비롯하여 부모님의 가까운 지인과 비교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 08: 부모님은 제가 공부하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왔는데도 시험성적이 안 나오는 것을

부모님은 이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너 어디 놀러 다닌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하게 싸운 적도 있죠. 상처도 많이 되고 힘이 들었어요.

사례 07: 동생은 명문대를 갔어요. (중략) 비교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명절 때라던가.. 눈치도 좀 보이고 해서 일부러 그런 자리를 피했어요. 일단 비교를 당하면 엄청 화가 났어요.

세 번째는 ‘부적 정서의 지속적인 경험’으로서, 참여자들은 위와 같은 어려움들과 함께 고립된 생활 속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였다. 노력 대비 오르지 않는 성적, 자기조절의 어려움, 사회적인 비교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불안이 증가했으며 자신 또는 주변에 대한 분노를 지속적으로 경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가자들이 기존 연구의 참가자들처럼(송인섭, 1993; 윤덕상, 1981; 조태현, 남철현, 2000)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겪지는 않았다.

사례 02: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나고 해서.. 외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었죠. 제가 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불확실한 상황이 불안 했죠

불리한 상황에 대한 건설적 대처

참여자들은 재수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하여 건설적인 대처를 하였다. 그 하위구성요소는 ‘자신의 한계와 어려움을 수용’,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 ‘인내와 지

속적인 노력’이다.

첫 번째는 ‘자신의 한계와 어려움을 수용’으로서, 참여자들은 재수 초반과 달리 부딪치게 되는 크고 작은 한계 상황들을 수용하려고 노력하였다. 매일 반복되는 제한적이고 힘든 현실에 대해서도, 재수의 끝나는 시점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였다.

사례 01: 힘들어봐야 얼마나 힘든 거겠어,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때 당시의 생활 자체가 아침부터 밤까지 학원에 매일 있었고 그런 삶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더 힘들 건 없지 않겠냐,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 참여자들은 재수의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였다. 목표했던 대학의 범위를 좀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넓힘으로서 대학진학의 가능성을 높이하고자 했다. 또한 대학교의 명성보다는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와의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사례 03: 재수를 하다보니까 꼭 가고 싶었던 대학을 포기하고 점수에 맞춰서 가는 게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공과 꿈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으로서, 참여자들은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마다 오기를 갖고 버티면서 언젠가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 또한 재수경험을 통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자 했던 초반의 마음가짐을 지속적으로

상기했다.

사례 04: 힘들 때는 자존심과 오기로 버텼던 것 같아요. 해내고 만다, 뭐 이런 생각?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수능을 잘 봐서 고려대를 갔거든요. 저는 재수를 했죠. 공부를 똑같이 했고 심지어 어떤 때는 제가 더 점수가 높을 때도 있었는데 말이죠.

전체적으로 재수 경험을 ‘자신을 발전시키지만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긴 것’으로 인식했다. 평가적 관점의 구성요소는 ‘재수경험의 긍정적 효과들’과 ‘재수경험의 부정적 효과들’이다. 평가적 관점에서의 인식은 역경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함께 다루었던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지만(Frazier et al., 2001; 한노을, 2008), 재수경험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다(심연식, 2011; 오봉진 외, 2009).

재수경험에 대한 평가적 관점

평가적 관점은 재수를 마친 이후 긍정적 및 부정적 평가를 하는 관점으로서, 참가자들은

재수경험의 긍정적 효과들

재수경험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자기이해의 증가’, ‘삶에 대한 더 성숙한 태도’, ‘대학생활

표 3. 평가적 관점의 재수경험 인식구조

관점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의미단위
평가적 관점	재수경험의 긍정적 효과들	자기이해의 증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게 됨 삶의 목표가 좀 더 명확해짐
		삶에 대한 더 성숙한 태도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갖게 됨 사회적인 적응력과 유연성이 증가함 대인관계에서의 수용적 태도가 증가함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 증가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대학생활(자유로운 생활) 원하는 공부를 선택할 수 있는 대학생활 혼자가 아닌 대학생활(다양한 관계와 상호작용)
	재수경험의 부정적 결과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재수과정에서 멀어진 인간관계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과 감정 잃어버린 (늦어진) 1년
		노력에 대한 보상이 불분명함	수능시험 외의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하게 됨 노력하지 않았던 주변인이 같은 대학에 입학 대학교에 예상치 못했던 결점이 존재
		대학생활에 대한 경직된 태도	재수경험에 대한 보상으로 대학교 학업은 도외시함 재수당시의 태도가 유지되어 학업 외적인 대학생활을 즐기지 못함

에 대한 만족도 증가'가 있었는데, 이러한 효과는 기존 외상 후 성장 연구에서 개념화된 역경의 긍정적 효과와 유사하다(Tedeschi & Clahoun, 1996).

첫 번째는 '자기이해의 증가'로서, 참여자들은 재수경험을 통해 자신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자신의 한계 또한 이해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삶의 목표가 이전보다 명확해졌다고 하였다.

사례 03: 재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재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1년이에요. '넌 이만큼 할 수 있는 애야'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경험이었어요.

사례 06: 재수 전에는 정확한 목표가 없었는데, 재수를 하면서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재수는 사실 고등학교 공부를 1년 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 가서 그 어려운 대학 공부를 4년을 하려면, 내 적성에 맞는 공부 내 흥미에 부합하는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죠.

두 번째는 '삶에 대한 성숙한 태도'로서, 참여자들은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갖게 되었으며, 사회적인 적응력과 유연성이 증가하였다고 진술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의 수용적 태도도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성숙한 태도는 대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다.

사례 10: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대할 때 재수생들은 조금 달라요. 과제나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좀 더 합리적으로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고.. 더 절박하고 진지하게 임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겪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재수경험으로 인해 '대학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 재수경험에 비해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며, 정해진 공부가 아닌 관심 있는 공부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립되었던 재수생활과 달리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도 만족수준을 높이는데 주요한 요소였다.

사례 02: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가장 좋아요. 이전에는 공부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공 공부도 하면서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다양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재수경험의 부정적 효과들

재수 경험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동시에 부정적인 효과도 공존하고 있었다. 재수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노력에 대한 보상이 불분명함', '대학생활에 대한 경직된 태도'가 있었다.

첫 번째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인데, 참여자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수과정 당시 멀어지거나 단절된 후 현재까지 회복

되지 않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 또한 가족관계에서의 마찰이나 어려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던 경험 등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과 감정들이 존재하였다. 특히, 재수경험에서 얻은 것들과 별개로 ‘읽어버린 1년’에 대해 안타까운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대학생활이나 진로에 있어서 나이로 인한 불리한 상황들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사례 12: 인간관계를 잃었죠.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노력해도 예전만큼 가까워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례 02: 재수를 안 한 사람들은 그냥 그런 힘들었던 기간이 없이 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안 힘들게 해서 좋았을 것 같아요. 재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은 분명히 있는데, 그 경험 자체는 진짜 싫어요.

사례 10: 1년이라는 잃었어요. 일단 늦어지면 피해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한 살이라도 어린 게 그래도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재수를 하면서 얻는 의미들이 분명 있지만 나이라는 측면도 (어리다는 것도) 분명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노력에 대한 보상이 불분명함’인데, 수시모집과 같이 수능시험(정시모집) 외의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하게 된 경우, 노력하지 않았던 주변인이 같은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교에 예상치 못했던 결점이 존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몇몇 참여자들은(사례 08, 09, 11) 원하는 전공과 대학 입학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모집과 같이 재수과정의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 결과

를 통해서 입학함으로써¹⁾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는 내면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재수과정에 대한 보상이 불분명한 느낌 등을 보고하였다.

사례 11: 제가 재수를 하긴 했는데 내신으로 수시합격해서 왔어요. 그래서 ‘재수를 해서 내가 뭔가를 얻었구나.’ 이런 생각이 크게 들지는 않아요. 수능 결과로 이 대학에 오게 되었다면 느낌이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재수에서의 노력은 아무래도 수능에 비중을 두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했는데 그게 수능성적으로 안 이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오다보니까 뭔가 좀 미진한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재수경험으로 인해 ‘대학생활에 경직된 태도’가 나타났다고 진술했다. 가령, 재수경험에 대한 보상으로 대학교의 학업을 도외시하는 태도가 나타났으며 반대로 재수 당시의 압박감 등 태도가 유지되어 학업 외적인 대학생활을 편하게 즐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 02: 재수 때 워낙 힘들게 공부하고 들어와서 그런지 다시 여기 대학에서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1) 수능시험 점수를 통해 합격자를 선발하는 정시모집과 달리, 수시모집은 고등학교 성적, 면접, 논술 등을 통해 대학교가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모집절차이다. 수시모집의 일정 및 결과 발표는 수능시험보다 이른 시기에 진행되며 합격 시엔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수시모집의 재수생 포함 여부는 대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수생들은 수능시험 점수를 통해 정시모집에 지원하고자 한다.

요. 좀 더 편하게 대학생활을 즐겨도 되는 데, ‘여기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는 것 같아요.

재수경험에 대한 의미적 관점

의미적 관점은 재수라는 역경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부정적인 영향까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의미를 형성하는 것으로, 참여자들은 재수경험 전체를 ‘내 삶의 일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구성요소로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의미 형성’,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자 함’이 있다.

재수로 인한 부정적 결과의 수용¹⁾

참여자들은 재수경험의 부정적인 결과들을 수용하고자 하였는데, 그 하위구성요소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의미형성’, ‘부정적인 결과들도(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자 함’이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의미형성’으로서, 참여자들은 불분명한 보상에 대해서 ‘노력의 결과가 다양한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의미를 형성하였으며, 실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과보다 과정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생각이 다각화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표 4. 의미적 관점의 재수경험 인식구조

관점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의미단위
의미적 관점	재수로 인한 부정적 결과의 수용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의미형성	노력의 결과는 다양한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 (불분명한 보상에 대한 의미화) 실패한 부분들을 통해 과정의 중요성을 알게 됨 (실패 경험으로 인해 생각이 다각화 됨)
		부정적인 결과들도(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자 함	잃어버린 1년에 대한 수용 회복되지 않은 기억과 감정들에 대한 이해와 수용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수용 (자신의 한계에 대한 수용, 실패에 대한 수용)
	역경에 대한 이해와 개방적 태도	역경에 대한 개방적 태도	역경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올 수 있음 역경은 어떻게든 지나감/ 피할 수 없으면 빨리 받아들이는 게 중요함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음
		결과에 대한 유연한 사고	역경(에 대한 노력)의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음/ 역경을 잘 못 이겨낼 수도 있음. (결과와 상관없이) 역경으로 인해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음

사례 08: 재수하다가 결국 논술로 지금 대학에 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너가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한 하늘의 보답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앞으로도 뭔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다른 생각 하지 말고 열심히만 하면은 모든 것은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 하셨어요. 노력의 결과는 여러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두 번째로 ‘부정적인 결과들도(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자’ 하였는데, 재수로 인해 늦어진 1년에 대해서는 ‘나만의 속도로 살기’와 같은 생각을 통해 자신의 삶으로 수용하였다. 또한 회복되지 않은 기억과 감정들, 만족스럽지 않은 재수결과에 대해서도 이해와 수용의 노력을 하였다.

사례 03: 나태하지 않게 살되, 남들의 속도에 맞춰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남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조금해 한다 던지 또는 남들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나태해진 다던지, 그런 것 없이 저의 속도대로 살고 싶어요. 전 이미 재수를 했기 때문에 1년 늦었어요! 그래서 제 나뉼의 속도대로 살고 싶어요.

역경에 대한 이해와 개방적 태도

참여자들은 재수경험으로 인한 전반적인 변화를 통해 역경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하위구성요소로는 ‘역경에 대한 개방적 태도’, ‘결과에 대한 유연한 사고’가 있다.

첫 번째는 ‘역경에 대한 개방적 태도’로서, 참여자들은 역경이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며, 어떻게든 지나가므로 피할 수 없으면 빨리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이 어떤 역경이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보고하였다.

사례 03: 재수가 괴물로 보였어요. 근데 그 상황이 닥치기 전에는 엄청 걱정되고 그 상황이 되면 진짜 힘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겨낼 수 있는 경험이잖아요. 앞으로의 역경도 막상 닥치면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행복이나 의미를 또 찾고 그러는 거죠.

다음으로 ‘역경의 대처 결과에 대한 유연한 사고’를 나타냈는데, 역경에 대처하거나 노력한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거나 또는 역경을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연연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타협안을 찾는 것도 성공하는 방법이다’와 같은 태도로 나타났다. 또한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역경 자체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사례 06: 역경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 같고요. 이 역시도 재수로 인해서 개방적으로 변한 사고방식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막 고수 한다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그래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재수경험자들이 재수 경험

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인식의 구조는 무엇이며, 그러한 구조에 있어서 재수과정에서의 대처와 영향 그리고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조사함으로써 재수라는 역경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12명의 참여자 진술을 기반으로 18개의 하위 구성요소와 7개의 주요 구성요소를 도출하였고, 시간적 맥락에 따라 3단계로 범주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재수 경험은, '재수에 대한 목표지향적 인식과 헌신', '개인적 및 관계적 어려움을 경험', '불리한 상황에 대한 건설적 대처'를 하는 '실천적 관점'에서, '재수경험의 긍정적 효과들'과 '재수경험이 부정적 결과들'이 공존하는 평가적 관점을 거쳐, '재수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을 수용'하고 '역경에 대한 이해와 개방적 태도'를 갖는 '의미적 관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재수라는 역경을 실제로 겪는 실천적 관점에 있어서 재수경험은 '한계와 고통을 주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겨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재수생들은 재수를 시작하며 1년이라는 기간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여긴다. 따라서 원하는 전공과 대학, 스스로에 대한 도전과 같은 목표들을 설정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한다. 하지만 해당 기간이 이미 한 번의 실패로 비롯되었다는 점, 대인관계의 축소 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립감 및 압박이 더해지면서 상황의 불확실성, 자신의 한계 직면, 주변에 대한 분노 등 어려움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 불안, 분노 등의 증상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재수생들은 재수라는 역경이 끝나는 시점이 분명하게 정해져있음을

인지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인내와 좋은 결과에 대한 기대 속에서 재수생활을 지속해나간다. 재수과정에서의 이러한 인식은, 재수과정 중인 재수생들의 인식을 연구했던 기존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오봉진 외, 2009). 재수생들의 이러한 태도를 볼 때 재수경험은 최소한의 선택을 통해 시작된다는 점, 그 물리적 기간이 정해져있다는 점, 목표지향적인 인식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전쟁이나 에이즈 등과 같이 그 사건자체가 갑작스럽고 비의도적이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역경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수생활이 끝난 평가적 관점에 있어서, 재수경험은 '나를 발전시키지만 보이지 않는 상처도 남기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학생활은 재수기간과는 상반되는 다양한 경험과 기회가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바라보는 재수경험은, 1차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신감, 사회성 등을 향상시켜준 계기로 인식되는 등 '대학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2차적으로는 1년이라는 시간과 기존의 친밀했던 관계를 잃게 된 경험이며 대학생활에 대한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 그 '부정적인 결과가 공존'하고 있었다.

긍정적인 영향의 대부분은 관계적인 부분보다 개인적인 부분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대한민국에서 출신 대학교의 수준은 각 계층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이며, 따라서 어떤 대학을 가는가는 자신의 계층적 지위를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최영표 외, 1989). 이러한 가치는 유교적 전통과 가족중심적 사고의 영향으로 재수에 임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등에 의해서도 강요된다(김태연, 김유진, 1978; 한성열, 2008). 이는 대학교라는 목표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재수경험의 특성으로도 볼 수 있다. 재수생들은 재수 과정에서 대학에 합격해야 하는 구조와 압박 속에서 주변 관계로부터 고립되고, 좁아진 관계 속에서도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하여 다양한 갈등을 겪는다(심연식, 2011; 오봉진, 2008). 이처럼 제한된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한계 및 불확실한 상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영역에서 더 많은 변화를 겪는다.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관계에 대한 인식변화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반응을 보였으며, 반면에 ‘개인적인 한계나 위기를 극복하거나 견뎌낸 점’ 등을 가장 큰 변화로 보고하였다.

대학교가 주요한 목표인 재수경험의 특성은 재수생들이 재수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실천적 관점에서 목표했던 부분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 더 잘 나타났는데, 재수생들은 ‘원하는 전공과 대학’이라는 명목적인 목표와 더불어 ‘나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는 내면적인 목표를 갖고 재수생활을 하였으며, 이 두 가지가 모두 만족되어야 대학생활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노력에 대한 보상이 불분명함’과 같은 결과는, 재수경험의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수시, 논술 등과 같이 재수과정의 노력이 현재의 대학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재수과정에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던 주변인이 같은 대학에 오게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참여자들은 대학생활 만족 수준과 재수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에 따른 4개 유형으로 선정

되었다. 그런데 재수에 대해 이러한 결과를 보고한 응답자 6명중 5명이 대학생 불만족 집단이었으며, 이들이 재학 중인 대학은 목표했던 수준과 근접하거나 더 높았다. 이와 같은 모순적 평가가 나타나는 이유는 재수 경험 자체가 이미 실패를 통해서 시작되는 역경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와 개인적인 한계를 현 과업을 위한 책임이나 전념, 미래에 대한 기대와 통합하며 의미를 추구하는데(Wong, 1998), 국내 청소년들에게 재수는 대학교라는 주요한 사회적 지표와 연결되는 문제임과 동시에 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는 강력한 역경 중에 하나이다. 때문에 명시적인 목표 대학교와 더불어 ‘재수과정을 통하여 과거의 실패를 만회하고 자신의 신념, 노력 등을 완성’하기 위한 심리적 목표를 함께 설정한다. 따라서 본래의 목표대학교보다 더 좋은 대학에 왔음에도, 수시, 논술 등과 같이 재수과정의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 결과를 통해서 입학하였다거나 자신의 대학교에 노력하지 않은 주변인이 함께 입학한 경우에는 재수과정에 대한 보상이 불분명하게 인식되어 심리적 목표의 좌절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역경은 명목적인 결과와 더불어 그에 연결되어 있는 심리적 목표 및 의미까지 충족이 되어야 좀 더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점이 재수라는 사례에서 매우 잘 나타나고 있다.

의미적 관점은 재수라는 역경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부정적인 영향까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의미를 형성하는 것으로, 참여자들은 재수경험 전체를 ‘내 삶의 일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역경에 부딪치면

서 기존에 갖고 있던 삶의 의미를 수정 한다는 기존 연구의 모형이 재수 경험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Emmons, Colby, & Kraiser, 1998; Park, 2010; Vash, 1994). 재수경험자들은 재수로 인하여 남아있는 부정적인 기억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잃어버린 시간이나 불분명한 결과 등 돌이킬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새로운 상황적 의미를 부여하며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또한 이러한 의미화 과정은 삶의 전반적인 의미에서 역경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주었다. 가령 재수 경험을 통하여 ‘나에게도 실패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와 같이 역경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물론, 재수 결과의 부정적인 부분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연연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타협안을 찾는 것도 성공하는 방법이다’와 같이 역경의 결과에 대해서도 유연한 사고를 나타냈다.

청소년기는 삶의 목적과 의미의 변환이 매우 활발한 시기인데, 이 시기의 의미 변환이란 과거의 부모나 동료들과 같은 중요한 타인과의 의존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더 큰 새로운 개인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안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가령 시간이 흘러가면서, 의심과 불안이 고통스러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가 없으며, 자신을 믿고 견디면 더 큰 보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Fry, 1998). 이러한 발달적 관점에 따라서 볼 때, 역경으로서의 재수경험도 제한된 환경과 개인적 한계 등을 직면하며 앞서 언급한 역경의 경험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주요한 경험이며, 이를 통해 삶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비일상적이고 심각한 외상 사건을 주로 다루었던 역경연구에 더하여, 재수경험이라는 청소년기의 역경을 다룸으로서 역경에 대한 정보를 보다 일상적인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둘째, 역경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는 역경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 또는 부정적인 영향 어느 한쪽에만 중점을 두는 경향이 높았는데,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재수경험은 평가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역경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모두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Armeli et al., 2001; Linley & Joseph, 2004).

셋째, 사회구조적으로 대학교의 역할이 중요한 대한민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재수라는 역경에 대한 풍부한 기술과 더불어 의미가 형성되는 인식의 구조를 확립하였으며, 재수에 대한 실천적 관점, 평가적 관점, 의미적 관점의 통합적인 시각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재수 및 역경에 대한 선행 연구에 경험적 이해를 더하였으며, 역경으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변화 수준만을 다루던 기존 연구에 비하여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한다(Zoellner & Maercker, 2006). 특히,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관계에 대한 인식변화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반응을 보인 반면, 개인적인 한계나 극복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 크게 반응한 점, 1차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 등을 보고하였지만 면담을 지속하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 점, 그 의미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했던 점 등은 이러한 현상을 다루는데 있어서 질적인 연구 접근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갖는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의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학교의 사회적 순위가 높은 대학과 낮은 대학의 인식을 모두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모든 대학 범위에 있어서는 대학의 순위가 높은 편이었다. 또한 재수 경험이 있지만 대학 입학에 실패한 경우의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재수생의 일반적인 인식구조로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하위권 대학의 재수 경험자 그리고 대학 입학에 실패한 재수 경험자의 인식을 중점적으로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재수생과 반수생, 삼수생, 사수생 등을 세분화하지 않았으므로 재수 집단 내에 존재하는 세부적인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앞의 인식구조에 있어서 재수빈도에 따른 집단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가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수라는 역경을 겪고 있는 시점이 아닌, 이 후의 삶에서 회고적인 접근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재수 당시의 인식 변화 등에 있어서 누락되는 정보가 있거나 현재의 인식이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다. 역경 후의 변화에 대한 중단연구에 따르면 역경으로 인한 인식의 변화에 있어서, 역경 과정의 초반 인식이 이 후의 삶에서도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다(Frazier et al., 2001).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회고적인 접근이 아닌, 실제로 재수를 경험하는 시점과 직후의 시점 그리고 이후의 삶 등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인식의 변화 과정을 중단적으로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금명자 (2008). 한국사회와 교육적 성취: 성취의 그늘,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299-317
- 김보라, 신희천 (2010). 자아탄력성과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117-136.
- 김미재 (2005). 성인 애착, 책임 귀인과 이별이후 성장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2007) 대학 서비스 만족도가 대학생생활의 삶의 질과 대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연, 김유진 (1978). 재수생의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31, 257-286.
- 박영신, 김의철 (2008). 한국사회와 교육적 성취: 성취의 그늘,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3): 성취의 그늘, 한국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심리적 역동.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223-253.
- 배수옥 (1991). 재수생들의 생활과 배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인섭 (1993). 재수생의 심리적 경향과 문제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31(3), 37-54.
- 신수빈 (2012). 대학생들의 이별 후 성장에 관한 질적 분석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연식 (2011). 대입 재수생의 학습성과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오봉진, 천석문, 이영순 (2009). 재수생의 생활

- 적응에 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10(4), 2455-2477.
- 오봉진 (2008). 재수생의 적응과정 분석.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문.
- 윤덕상 (1981). 7·30 조치 후의 재수생의 실태와 심리적 갈등.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지혜, 오영림 (2010). 탈북청소년의 외상 후 성장(PTG) 체험연구: 탈북대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12), 49-82.
- 이유리 (2010). 외상후 성장의 애착-인지 모형 검증: 입양 미혼모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임지준 (2012). 성인애착과 실연 스트레스 및 실연 후 성장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관희 (1998). 대학 입시준비생의 상태불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명숙 (2012). 외상적 사별 경험에 따른 병적 애도 증상에서 의미만들기와 사건중심성의 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태현, 남철현 (2000). 대입재수생 및 편입준비생의 약물 남용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건강증진학회지, 17(2), 57-73.
- 주경례, 안신호 (2005). 무엇이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만들어주는가?: 삶의 의미 연구에 대한 개관. 심리과학, 4, 1-24.
- 최영표, 한만길, 이혜영 (1989). 고학력화 현상의 진단과 대책: 재수생과 대졸 실업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통계청 (2010). 사회조사
- 한노을 (2008). 외상 후 성장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아동기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학과 석사학위논문.
- 한성열 (2008). 한국사회와 교육적 성취: 이론적 토대: 한국문화의 맥락에서 본 교육의식: 한국사회에서 교육적 성취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33-46.
- Abraido-Lanza, A. F., Guier, C., & Colon, R. M. (1998). Psychological thriving among Latinas with chronic illness. *Journal of Social Issues*, 54, 405-424.
- Affleck, G., Tennen, H., Croog, S., & Levine, S. (1987). Causal attribution, perceived benefits, and morbidity after a heart attack: An 8-year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29-35.
- Armeli, S. S., Gunthert K. C., & Cohen L. H. (2001). stressor appraisals, coping, and post-event outcomes: The dimensionality and antecedents of stress-related growt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3), 366-395.
- Baumeister, R. F. (1991). *Meaning of lif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est, M., Streisand, R., Catania, L., & Kazak, A. E. (2001). Parental distress during pediatric leukemia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PTSS) after treatment end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6, 299-307.
- Calhoun, L. G., & Tedeschi, R. G. (1998). Posttraumatic growth: future direction. In R. G. Tedeschi, C. L. Park, & L. G. Calhoun(Eds.), *Posttraumatic growth: positive changes in the aftermath of crisis*. (pp.215-238).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Publishers.

- Collins, R. L., Taylor, S. E., & Skokan, L. A. (1990). A better world or a shattered vision: Changes in life perspectives following victimization. *Social Cognition*, 8, 263-285
- Cordova, M. J., Cunningham, L. L. C., Carlson, C. R., & Andrykowski, M. (2001). Posttraumatic growth following breast cancer: A controlled comparison study. *Health Psychology*, 20, 176-185.
- Creswell, J. W. (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조홍식 외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7에 출판).
- Downey, G., Silver, R. C., & Wortman, C. B. (1990). Reconsidering the attribution-adjustment relation following a major negative event: Coping with the loss of chil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25-940.
- Emmons, R. A., Colby, P. M., & Kraiser, H. A. (1998). Personal goal and the recovery of meaning. In P. T. P. Wong & P. S. Fry (eds.) *The Human Quest for Meaning: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163-178).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vers, A. W. M., Kraaimaat, F. W., van Lankveld, W., Jongen, P. J. H., Jacobs, J. W. G., & Bijlsma, J. W. J. (2001). Beyond unfavourable thinking: The Illness Cognition Questionnaire for chronic diseas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9, 1026-1036.
- Frazier, P., Conlon, A., & Glaser, T. (2001). Positive and negative life changes following sexual assaul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9, 1048-1055.
- Fry, P. S. (1998). The Development of Personal Meaning and Wisdom in Adolescence: A Reexamination of Moderating and Consolidating Factors and Influences. In P. T. P. Wong & P. S. Fry(eds.) *The Human Quest for Meaning: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91-110).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uerra, N. G., & Slaby, R. G. (1989). Evaluative factors in social program solving by aggressive boy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7, 277-289.
- Horowitz, M. J. (1986). *Stress response syndromes* (2nd ed.). Northvale, NJ: Jason Aronson.
- International Mathematical Olympiad. (2012). *IMO report*. Retrieved from http://www.imo-official.org/team_r.aspx?code=KOR&year=2012
- Joseph, S., Williams, R., & Yule, W. (1993). Changes in outlook following disaster: The preliminary development of a measure to assess positive and negative respons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6, 271-279.
- Klinger, E. (1998). The Search for Meaning in Evolutionary Perspective and Its Clinical Implications. In P. T. P. Wong & P. S. Fry(eds.) *The Human Quest for Meaning: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27-50).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ee, S., & Jung, T. (2014). How retaking the entrance examination can enhance student quality of life at university.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42(2), 331-340.
- Linley, P. A., & Joseph, S. (2004). Positive change

-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 a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1), 11-21.
- Maddi, S. R. (1998). Creating Meaning Through Making Decisions. In P. T. P. Wong & P. S. Fry (eds.) *The Human Quest for Meaning: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3-26).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cMillen, J. C., Smith, E. M., & Fisher, R. H. (1997). Perceived benefit and mental health after three types of disaste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 733-739.
- Mou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 OECD (2012). *Education at a Glance 2012: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 Park C. L., Cohen L. H., & Murch R. L. (1996). Assessment and prediction of stress-related growth. *Journal of Personality*, 64, 71-105.
- Park C. L. (2010). Making sense of the meaning literature: An integrative review of meaning making and its effects on adjustment to stressful life events. *Psychological Bulletin*, 136(2), 257-301.
- Ryff, C. D., & Singer, B. (1998). The contours of positive human health. *Psychological Inquiry*, 9, 1-28.
- Schwartzberg, S., & Janoof-Bulman, R. (1991). Grief and the search for meaning: Exploring the assumptive worlds of bereav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0, 270-288.
- Siegel, K., & Schrimshaw, E. W. (2000). Perceiving benefits in adversity: Stress-related growth in women living with HIV/AID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1, 1543-1554.
- Tashiro, T., & Frazier, P. (2003). "I'll never be in a relationship like that again": Personal growth following romantic relationship breakups. *Personal relationship*, 10, 113-128.
- Tedeschi, R., F.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 455-471.
- Thompson, S. (1985). Finding positive meaning in a stressful event and coping. *Basic and Applied Psychology*, 6, 295-297.
- Tomer, A., Eliason, G., & Wong P. T. P. (2007). *Existential and spiritual issues in death attitude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Vash. C. L. (1994). *Personality and adversity: Psychospiritual aspects of rehabilit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ysman, M., Schwarzwald, J., & Solomon, Z. (2001). Hardiness: An examination of its relationship with positive and negative long term changes following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4, 531-548.
- Wong, P. T. P. (1998). Implicit theories of Meaningful Life and the Development of the Personal Meaning Profile. In P. T. P. Wong & P. S. Fry(eds.) *The Human Quest for Meaning: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111-140).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Zoellner, T., & Maercker, A. (2006). Posttraumatic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growth in clinical psychology: A critical
review and introduction of a two component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 626-653.

논문 투고일 : 2014. 09. 21

1 차 심사일 : 2014. 10. 13

게재 확정일 : 2014. 11. 09

Meaning Making for the Experience of Retaking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anghun Lee

Taeyun 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at investigating how those students who retoo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or RCEE) appreciate the experience. For this purpose, three persons from each cell at the 2(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high vs. low) by 2 (evaluation of RCEE: positive vs. negative) combination among those who participated in Lee and Jung study (2014) were selected and were interviewed. Qualitative data analysis based on phenomenological approach produced seven categories and 19 subcategories, which were grouped on the temporal dimension. First, when they were at the midst of this RCEE experience, the college students saw this as adversity that should be overcome while they underwent a limit of pain they could bear. Second, the college students evaluated this experience as upgrading my life with wound left unseen. Finally, they assigned to both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RCEE experience the meaning that the experience made them accept themselves as they were. Given these results, implications,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RCEE experience, adversity, meaning making, college life, and qualitative research